최근 국내 정식 출시된 '포켓몬고'가 흥행돌풍을 일으키면서 국내 게임 기업들도 증강현실(AR) 관련 콘텐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빛소프트의 '소울캐쳐AR'(왼쪽)과 엠게임의 '캐치몬'.
사진제공 | 엠게임·한빛소프트

소울캐쳐·캐치몬·귀혼…증강현실게임 뜬다

'포켓몬고' 돌풍에 국내업체도 반격 지적재산권 활용 AR게임 출시 앞둬

게임

'포켓몬고'의 국내 정식 출시로 증강현실(AR) 열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내 게임 기업들도 관련 콘텐츠 준비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인기 지적재산권(IP)을 활용한 AR게임들도 다수 제작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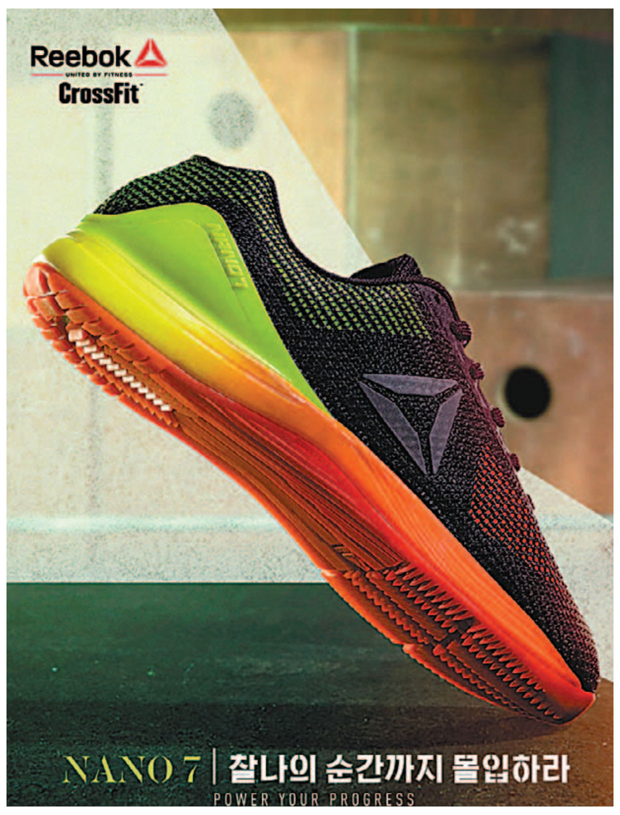
먼저 엠게임은 '캐치몬'이라는 AR게임을 3월 중 출시한다. 캐치몬은 위치기반 서비스(LBS)와 AR을 접목한 게임이다. 증강현실로 나타난 다양한 소환수를 스마트폰을 통해 수집·육성하고, 다른 유저들과 함께 근거리 전투를 벌이거나 보스 몬스터를 사냥하는 방식이다. 또 수집한 소환수 카드의 능력치로 전투를 펼치거나, 건물 대신 소환수 카드를 세우고 주사위를 이용해 토지를 점령, 많은 재산을 획득하면 승리하는 보드게임과 같은 다양한 모드의 콘텐츠도 즐길 수 있다. 엠게임은 또 '귀혼'이라는 인기 PC온라인게임 IP를 활용한 AR게임도 준비 중이다. 이 게임은 LBS를 활용해 원작의 영물(펫)을 증강현실로 포획·수집해 게임 속 캐릭터와 모험을 즐길 수 있는 AR 기반 퍼즐 역할수행게임(RPG)이다. 이 게임은 이르면 상반기 내 출시될 예정이다.

한빛소프트도 AR게임을 준비 중이다. 1분기 중 출시 예정인 위치기반 AR 포획 게임 '소울캐쳐AR'이 그 주인공이다. 수집형 캐주얼 RPG로 길거리를 누비며 250여명의 영웅을 포획하고 도감을 완성하는 방식으로 즐길 수 있다. 특히 클레오파트라, 이순신, 잔다르크 등 전 세계의 역사적 영웅들이 등장해 재미를 더한다. 각 인물과 관련이 있는 유적지나 관광지, 지역 축제 현장 등 400여 곳의 특정명소엔 해당 인물의 스페셜 영웅을 수집하는 재미가 있다. 또 성장시킨 영웅으로 친구 또는 길에서 마주친 다른 유저들과 대결도 가능하다. 거리에 등장하는 거대 몬스터와의 레이드 대결도 가능하다. 영웅 진화 시 해당 영웅의 일대기를 그린 역사 기반 웹툰을 제공해 스토리텔링과 역사 교육의 매력도 갖췄다.

드래곤플라이도 AR게임을 준비 중이다. 자사의 인기 일인칭슈팅(FPS)게임 '스페셜포스'를 기반으로 한 AR게임을 준비 중이며, 인기 로봇 캐릭터 '또봇'의 IP를 활용한 AR게임도 제작하고 있다. 이 게임들은 연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인기 애니메이션 '터닝메카드'를 활용한 '터닝메카드고'와 '뽀로로'를 활용한 '뽀로로고' 등의 AR게임도 국내에서 개발 중에 있다. 한편 설 연휴 직전 국내에 정식 출시된 포켓몬고는 이용자수가 700만명을 넘어서고, 애플리케이션 장터에서 인기 순위 1위에 오르는 등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스타일에 기능성까지 갖춘 트레이닝 웨어는 운동하는 재미는 물론 운동효과도 높여준다. 아디다스는 팔의 움직임을 자유롭게 한 트레이닝복(왼쪽)을 선보였고, 리복은 기능성 트레이닝화 '크로스핏 나노7'을 출시했다.
사진제공 | 아디다스·리복

트레이닝 패션 시대 "목 늘어난 츄리닝은 제발!"

▮ 운동남을 위한 트레이닝 트렌드

남성 요구 반영한 트레이닝 패션 인기 팔의 움직임이 자유로운 프리리프트티 크로스핏·피트니스 최적화된 트레이닝화

아웃도어

운동하는 여성들이 급증하면서 아웃도어·스포츠 브랜드들은 여성 운동 애호가들의 입맛에 맞는 제품들을 앞 다퉈 출시하고 있다. 반면 남성들을 위한 제품은 '기본에 충실할 것'이라는 원칙에서 별반 나아가지 못했다.

이에 "우리들도 멋진 트레이닝 웨어를 입고 싶다"는 남성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헬스장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목이 늘어나고 사이즈도 헐렁한 운동복은 이제 그만 사양하고 싶다는 얘기. 특히 외부에서 운동을 즐기는 남성들은 스타일은 물론 기능성까지 제대로 갖춰진 제품을 선호하고 있다.

'남성의', '남성을 위한' 제품들을 활용해 운동에 대한 재미를 붙이고 운동효과도 높여보는 건 어떨까.

●실제 선수·동호인들의 요구 반영…남성에 최적화된 제품 봇물

남성들은 움직임이 크거나 격하게 몸과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으로 체력과 몸을 다지곤 한다. 헬스장에 가보면 근육 트레이닝을 하는 남성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평소 운동을 하면서 느낀 불편한 점, 필요한 부분들을 반영한 제품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

아디다스는 운동을 할 때 상하의 움직임이 많은 남성들을 위해 인체공학적인 소매 패턴을 사용해 팔의 움직임을 자유롭게 한 '프리리프트티'를 선보였다. 향상된 속건성으로 땀이 많이 나는 남성들도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다. 상체를 올리고 내리는 동작을 할 때 티셔츠가 들쳐 올라가지 않도록 최적의 길이를 유지하게끔 디자인된 것이 특징이다.

'크레이지트레인쇼츠'는 고강성 코듀라 소재를 배치해 웨이트 동작시 발생하는 마모를 최소화했다. '터프타이츠'는 허벅지 마모를 최소화하고 근육을 편안하게 잡아주어 트레이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리복은 기능성 트레이닝화를 출시했다. '크로스핏 나노7'은 실제 크로스핏 선수, 커뮤니티 회원들과의 연구개발을 통해 단기간 고강도의 운동을 기반으로 하는 크로스핏과 각종 피트니스에 최적화한 트레이닝화이다. 달리기, 박스 점프처럼 활동량이 많은 운동을 할 때 발에 땀이 많이 나는 사람들을 위해 내구성은 물론 통기성까지 강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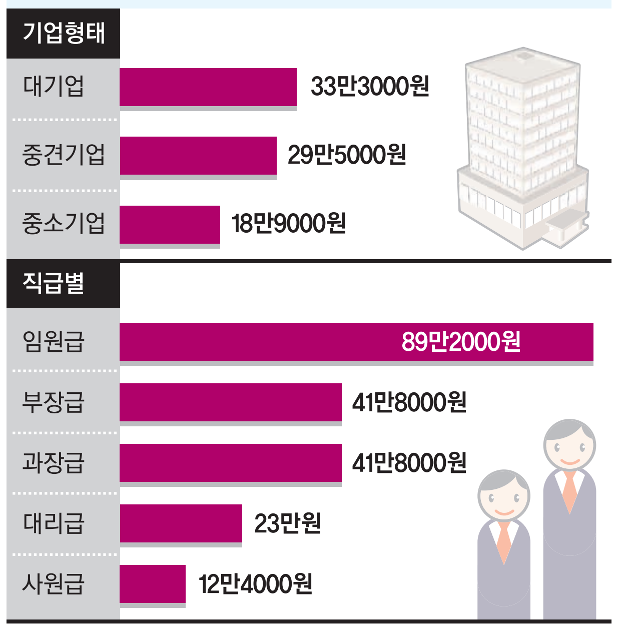
밀레의 '라네 트레이닝복'은 신축성이 우수하고 수분을 빠른 시간 안에 건조시키는 기능성 폴리 스트레치 소재를 사용했다. 활동성이 뛰어나면서도 쾌적하다. 실루엣을 잡아주는 슬림한 핏이 특징. 팬츠 허릿단에는 편안한 착용감을 주는 동시에 운동 전후 입고 벗기 쉽도록 이밴드 처리를 했다.

나이키도 선수들의 요구에 맞춰 업그레이드한 트레이닝화를 선보였다. 나이키 '메트콘3'은 편평하고 견고한 플랫폼을 바탕으로 디자인돼 남성들이 많이 하는 스쿼트, 박스 점프, 리프트 등의 동작에 필요한 고도의 안정성을 제공한다. 더욱 많은 부하를 견딜 수 있도록 4mm의 오프셋을 차용했고, 리프팅 시 뒤꿈치에 가해지는 압력을 견딜 만큼 견고하다. 앞발은 부드러움과 유연성이 뛰어나 고강도의 파워서킷 트레이닝에도 부드러운 움직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데이터로 보는 경제 직장인 연말정산 예상 환급액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76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2.8%가 환급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 소득공제 환급액은 평균 22만1000원이었다. 예상 환급액 규모는 기업형태와 직급별로 차이가 드러났다.



코오롱스포츠, 봄·여름 컬렉션 공개

3가지 전략상품·2가지 캡슐 컬렉션 선봬

코오롱스포츠 17ss컬렉션

코오롱스포츠가 2017년 봄·여름 시즌에 선보일 전략상품과 콜라보레이션 신상품을 공개했다. 세 가지 전략상품과 아웃도어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새로운 콜라보레이션 라인 및 캡슐 컬렉션이다.

시즌 전략상품의 첫 번째는 키퍼. 2015년부터 가을·겨울 시즌마다 출시했던 경량패딩 '키퍼'를 올해엔 봄·여름 시즌에도 선보인다. 시즌에 걸맞은 산뜻한 컬러조합이 특징이다. 두 번째 전략상품은 뮤즈이다. 뮤즈 라인은 도시와 자연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는 아웃도어의 트랜드를 반영한 라인으로 대표 상품은 '뮤즈 재킷'과 '웨더 코트'이다. 마지막 전략상품은 메시. 패션업계의 비수기라고 할 수 있는 한여름을 위해 메시 소재가 적용된 다양한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두 가지 캡슐 컬렉션은 아웃도어 이상의 라이프스타일로의 접근을 강화했다. 세 시즌 동안 지속해 오고 있는 노아 프로젝트의 캡슐 컬렉션 및 일본의 떠오르는 디자이너 세이신과의 콜레보레이션 라인이다. 노아 프로젝트는 코오롱스포츠가 2015년부터 멸종 위기의 동식물을 지정해 보호하는 캠페인이다. 이번 시즌에는 한라솜다리를 보호하기 위한 '플라워파워' 캡슐 컬렉션과 캠페인을 선보인다. 제주의 한라솜다리 꽃을 모티브로 한 그래픽을 상품에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캠페인은 배우 배두나를 뮤즈로 활용하게 된다.

이밖에도 일본 디자이너 세이신 마츠이와 손을 잡고 콜라보레이션 라인을 선보인다. 건축가 안도 타다오의 건축물에서 영감을 받아 불필요한 요소를 최소화하여 정제된 실루엣과 세련미를 보여준다.

양형모 기자

엔씨소프트 과징금 1100만원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적발…카카오도 시정명령

하도급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해 주지 않은 카카오와 엔씨소프트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카카오 프렌즈 관련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카카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또 PC온라인게임의 그래픽 제작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한 엔씨소프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2014년 6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 동안 7개 하도급업체에 모두 27건의 카카오 프렌즈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엔씨소프트의 경우 2014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약2년 동안 30개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116건의 온라인게임 그래픽 제작 및 온라인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이후에 발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프트웨어 업종에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소프트웨어 업종에 대한 직권조사 시 하도급계약서 미발급행위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뉴스디자인 | 이수진 기자